

## 영화에서 연극까지 : 인간에게 진실은 존재하는가?

극단 수 (나생문)

글/ 송현옥(연극평론가, 서경대 교수)

신생극단 수(秀)는 구로자와 아키라의 영화를 각색한 <나생문>(연출 구태환)을 가지고 첫 무대에 섰다. <라쇼몽>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일본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아무다가와 류노스케의 허무주의적 색채가 짙은 <라쇼몽>과 <덤불 속>이라는 두 단편을 엮은 것으로, 주제와 형식의 동양적이면서도 모던한 특성으로 인해 세계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한 작품이다. 굳이 창단 작품으로 이렇게 유명한 일본 영화를 각색한 작품을, 그것도 1950년대에 발표되었던 영화를 21세기에 연극으로 올리는 이유를 연출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극은 숲 속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둘러싼 증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산적에 의한 무사 아내의 강간과 무사의 살해 사건인데, 무사의 아내, 산적, 무당의 입을 빌어 말하는 무사의 혼령. 그리고 목격자 나무꾼의 진술은 각기 다르다. 이렇듯 피란델로를 연상시키는 주제를 가진 극은 그러나 단지 '진실의 상대성'만을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해석'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사실 이 연극의 소재는 지극히 일본적인 것이다. 전후의 극심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 있던 일본의 상황과 '혼네(속마음)와 행동의 피리'라는 일본인의 속성에 대한 풍자로서 구로자와 감독은 영화 <라쇼몽>을 제작한 것인데, 그 주제가 오히려 당시 서구의 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된 마당이지만, 이 극에서의 논리는 "해석하는 주체에게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해석 대상이 달리 기술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는 정말 지금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정치·사회 현상을 이끌어내는 관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연출은 나무꾼이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결말을 의도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작위적으로 결말에 삽입한 (류노스케의 허무주의에 구로자와의 휴머니즘을 덧붙인)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객관적 관점으로 사회를 읽으려는 관객에게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 차라리 인간의 조건을 '아래엔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는 낭떠러지에서 쥐들이 잡고 있는 바늘에 매달린 사람의 꼴'로 설명하는 가발수의 냉소적인 인생관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번 공연은 참으로 구로자와 영화에 충실한 각색이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세 가지 시간대의 존재와 회화화면 구조를 처리하는 과감한 방식에 있는데, 특히 환상적인 무당의 점심 장면과 마치 관객이 재판관인 것처럼 말하는 법정에서의 '정면 구도'는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이 연극 역시 세 겹의 구조와 각 장면마다의 표현양식을 변화하는 시도를 통해 사실적이면서도 표현적인 특성을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더욱이 다양한 타악기의 연주, 구체적인 음향 효과에서부터 전체적인 이미지 창출까지, 소리의 표현 효과에 세심한 신경을 쓴 흔적이 드러난다. 의상과 분장도 상징적인 특성을 가미하였고, 조명 역시 다양한 색으로 장면마다의 특성을 잘 살렸으나, 워낙 많은 큐 싸인을 소화하기에 디테일에서 거친 감이 있었다. 폐허의 느낌으로 다가와야 할 <나생문>의 세트도 영성해 보였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영화의 장면 변환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연극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에 있다. 비록 사물 악기의 변주를 통해 그 간극을 메우려 했으나, 장면 변환을 위한 잦은 임진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보다는 기계적인 진행으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 보인 배우와 연출의 성실한 자세는 앞으로의 극단 수(秀)의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

